

[홈](#) > [뉴스](#) > [뉴스](#) > [사회](#)

부산대 ‘화산특화연구센터’ 선정

백두산 화산 분화 예측 위한 한-중 공동 관측 장기연구 착수

2018년 04월 04일 (수) 10:22:47

신성찬 기자 ✉ singlerider@leaders.kr

윤성호 교수팀 “백두산 분화 대비한 한-중 공동 대응 시나리오 마련해 국민 안전 지킬 것”



▲ 윤성호 교수(사진제공=부산대학교)

부산대학교에 화산연구의 주축이 될 ‘화산특화연구센터’가 설립된다.

부산대(총장 전호환)는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2018년도 ‘기상·지진See-At 기술개발연구’ 사업의 ‘지진화산 기술’ 분야 화산특화연구센터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.

기상청은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기상·기후·지진 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‘기상·지진 See-At기술개발연구’ 사업을 추진, 기상·기후·지진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기술 개발 성과의 활용·확산에 힘쓰고 있다.

이번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평가 결과, 윤성호 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(연구책임자)가 ‘지진화산 기술’ 분야에 선정돼 향후 9년간 총 4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.

윤 교수팀은 백두산 화산의 전조현상 및 분화 예측을 위한 ‘한-중 백두산 공동 관측 장기연구’를 진행할 예정이다.

윤성호 교수는 “북한 핵실험 이후 백두산 화산분화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 고조와 한-중 관계 해빙기 도래에 따라 백두산 화산감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”며 “또한 백두산 화산활동 감시를 위해 현지에서의 관측자료 획득 및 화산 원격 관측 자료의 보완이 필요해 한-중 공동 장기관측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 신성찬 기자 singlerider@leaders.kr

© 일간리더스경제신문(<http://leaders.asiae.co.kr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 인쇄하기  창닫기